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FANDOM

가제 : 팬이 만든 세상

저자 : Anna Day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7년 9월 7일

분량 : 80,000 words

장르 : YA 소설



* **2015년 타임스/치킨하우스(Times/Chicken House) 아동 소설 경연대회 결선에 진출한 재능 넘치는 신예 작가의 판타지 모험 소설**

* 좋아하는 소설 속 세상에 푹 떨어진 아이들,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모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이야기나 등장인물에게 푹 빠지는 경험을 한다. 일상생활을 크게 지배할 정도로 가상의 세계와 만들어진 인물에 몰입하다 보면 자다가 꿈에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세상에 없는 상상 속 그 세상에 실제로 들어간다면 어떨까? 영국의 데뷔작가 애나 데이는 상상이 현실이 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 들려준다. 주인공 바이올렛이 평소 가장 좋아하는 소설 세상에 들어가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로 구성된 이 작품 역시 만들어진 이야기니, 우리는 바이올렛과 바이올렛이 읽는 소설 사이에 놓인 벽과 그리고 우리와 바이올렛 사이에 놓인 벽 두 개를 넘나드는 특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교수대의 춤>은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소설이다. 22세기, ‘인간’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유전적 우수 존재’와 ‘불완전한 존재’ 두 부류만 존재하는 미래 사회를 바탕으로 한 이 판타지 소설은 바이올렛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요소가 가득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노예 시대가 되돌아온 것처럼 사람을 타고난 외모와 지능에 따라 구분하고 사는 곳도, 직업도, 하는 일도 분리됐다는 전제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바이올렛을 몰입하게 한 건 ‘로즈’라는 여자 주인공이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우수한 존재의 허드렛일을 다 처리해야 만드는 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이 특별한 존재들은 통치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매주 잔인한 ‘행사’를 개최했다.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야외 경기장 한 가운데 교수대를 설치하고, 소소한 잘못을 저지른 불완전한 존재 여러 명을 한꺼번에 세워서 목을 줄에 매어 처형하는 행사였다. 가난 때문에 별 것 아닌 것을 훔쳤다는 이유로 끌려 들어온 불쌍한 사람들은 발판이 켠, 하고 열리는 순간 목에 매인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본능적으로 팔과 다리를 허우적대는데 우수한 존재들은 이

모습을 ‘춤’ 같다고 놀리며 즐기는 것이다.

이 잔혹한 처사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불완전한 존재들은 서로 뭉쳐서 반란군을 만들고, 이들의 폭압에 맞선다. 로즈는 반란군의 작전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계획에 투입된 아름답고 용감한 여전사였다. 정체를 숨기고 권력자 제레미의 집에 하녀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반란군을 돕는 것이 로즈의 임무였는데, 제레미의 아들 월로우를 만나면서 이 계획은 뒤흔들리고 만다. 여느 우수한 존재들과 달리 선하고 착한 월로우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바이올렛은 자신이 로즈라면 얼마나 좋을까, 수도 없이 상상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로즈와 자신의 공통점이라고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 색깔과 월로우 같은 타입을 좋아한다는 것밖에 없었다. 수업시간에 발표만 할라치면 땀을 뻘뻘 흘리는 통이니 로즈처럼 용맹하지도 않고, 결단력도 없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로즈가 되어, 월로우와 사랑에 빠지고 불행한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다. 게다가 바이올렛은 <교수대의 춤>을 향한 깊은 애정을 코스프레 행사에 로즈 차림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마음껏 드러냈다. 그런데 대규모 코스프레 행사가 열린 바로 그 날, 바이올렛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보니, 행사에 같이 간 친구들과 함께 커다란 경기장에 와 있었다! 그리고 바로 눈 앞에서, 사람들을 목에 매달고 ‘교수대의 춤’을 구경하는 소셜 속 그 잔인한 행사가 펼쳐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야기의 줄거리와 결말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살살이 다 아는 바이올렛은, 이야기가 원래 정해진 대로 흘러가도록 해야 할까? 의도치 않게 바이올렛의 영향으로 이야기가 바뀐다면? 그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는 있는 걸까? 상상 속 세상에서 바이올렛과 친구들의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이 긴박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애나 데이(Anna Day)는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에서 임상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다. 2015년, 소설 『Gallows Dance』로 타임즈/치킨하우스 ‘아동 소설 경연대회’ 결선에 진출했다. 위 소설은 이 수작을 토대로 완성한 데뷔 소설이다.

제목 : WINDFALL

가제 : 황재

저자 : Jennifer E. Smith

출판사: Delacorte Press

발행일: 2017년 5월 2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한 소녀의 첫 사랑과 첫 번째 상실, 첫 번째 큰 행운에 관한 이 이야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o All the Boys I've Loved Before」**의 작가 제니 한

“사랑과 행운, 그리고 단번에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Unexpected Everything」**의 작가 모건 매트슨

* 올 여름 해변가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YA** 로맨스 소설로 미 전역 캠페인 진행 예정

행운은커녕 불행의 아이콘이라 생각하고 살아온 열여덟 동갑내기 친구들에게 기대도 하지 않았던 행운이 굴러 들어왔다. 그것도 보통 행운이 아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하루아침에 생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울한 일만 가득하던 앨리스와 테디, 두 사람은 9년째 서로를 버팀목 삼아 살아왔는데, 실감도 나지 않는 거액이 들어오면서 각자의 삶도, 둘의 관계도 모두 바뀌기 시작했다. 풋풋한 시절에 슬그머니 시작된 첫사랑과 꿈만 같은 행운이 가져온 변화, 진짜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외동딸로 평범하게 살던 앨리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불행은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엄마와 아빠가 모두 세상을 떠난 일이었다. 그것도 아홉 살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벌어진 사태로 앨리스는 정든 집을 떠나 시카고에 있는 이모와 이모부 집으로 보내졌다. 짧은 9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과 장소들, 친구들과 전부 헤어진 앨리스는 왜 세상은 이렇게 불행한 곳일까 하는 억울한 마음에 어린 마음이 온통 멍들고 말았다. 그런 앨리스를 동갑이지만 든든한 오빠처럼 지켜준 건 사촌인 레오와 레오의 절친한 친구 테디였다. 꼬마 시절부터 단짝이던 두 사람은 앨리스가 오자마자 마치 처음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고, 챙겨주고, 어딜 가든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9년째, 열여덟 살이 된 지금까지 세 사람은 늘 붙어 다니는 사이로 지냈지만 3년 전부터 앨리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때로는 레오보다 더 혈육처럼 가까운 친구로만 생각했던 테디에게, 심장이 덜컹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절대 드러내지 말자고 다짐한 앨리스는 여태 아무렇지 않은 척 좋은 친구처럼 테디와 어울려 지냈다. 그 사이 다른 여자아이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헤어지는 테디를 보며 아픈 마음을 혼자 달래던 앨리스는 이제 열여덟 생일을 맞는 테디에게 두 가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오랫동안 숨겨온 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거액의 당첨금이 걸린 복권이었다.

테디의 집에서 복적복적 생일파티가 한창일 때만 해도, 몇 시간 뒤 어마어마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복권을 선물한 앨리스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테디도 뭘 듯이 기뻐했지만 당첨되리라고 진지하게 예상한 사람은 전혀 없었다. 다섯 개의 숫자 모두 테디와의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진지하게 고른 앨리스조차 그저 처음 사보는 복권과 그렇게나 큰 돈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을 뿐, 그 돈이 눈 앞에 나타나리라곤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테디의 생일날 저녁, 우연한 순간 마침내 테디와 입을 맞추기 직전까지 갔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앨리스에게는 복권 당첨보다 더 큰 행운으로 여겨졌다. 술 취한 레오가 저지른 작은 사고로 키스는 무산되고 말았지만, 앨리스는 테디와 서로 얼굴을 바짝 가까이 했던 그 순간이 다음 날이 되어서도 떠올리기만 하면 심장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런데 복권 추첨이 시작되고, 정말 심장이 터질 일이 생겼다. 앨리스가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가며 고른 숫자가, 전부 당첨된 것이다!

아버지가 감당할 수도 없는 빚더미만 남기고 엄마와 자신을 버린 채 떠나버린 후, 테디의 삶도 엉망진창이었다. 널찍한 집을 떠나 엄마와 둘이 살기에도 비좁은 방 한 칸짜리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건 시작에 불과했다. 간호사로 일하는 엄마는 야간 근무가 잦아 피곤에 절은 몸을 작은 거실 소파에 누인 채 잠을 청했고, 테디는 레오와 앨리스, 두 친남매 같은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단단히 잘못된 길로 나갔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 그에게, 수백만 달러라는 돈이 푹 떨어진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두 사람은 각자 꿈꾸던 미래가 있었지만 막대한 돈은 그 꿈을 흔들기 시작한다. 테디에게 떨어진 뜻밖의 행운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처음의 희열과 달리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저주처럼 바뀌는데, 과연 굳건했던 두 사람의 우정 혹은 사랑은 그대로 지켜질까? 예고 없이 찾아온 소용돌이에 붙들렸다가 다시 본 모습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행운'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저자 소개>

제니퍼 E. 스미스(Jennifer E. Smith)는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서 글쓰기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The Statistical Probability of Love at First Sight』 등 일곱 권의 YA 소설을 발표했다. 출간된 작품들은 33개 언어로 번역됐다.